



**예거 르쿨트르,**

## **뉴욕에 플래그십 부티크 오픈**

**새롭게 디자인된 플래그십 부티크가 매디슨가에 매뉴팩처의 정신을 불어넣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매디슨가(Madison Avenue) 701 번지에 위치한 플래그십 부티크의 대대적인 변신을 선보입니다. 메종과 뉴욕의 지속적인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 보이는 이번 행사는 매혹적인 워치메이킹의 세계와 예거 르쿨트르의 유산, 전문성, 독창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이전 부티크와 같은 장소에 위치한 새로운 플래그십 부티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 규모를 자랑합니다. 두 개의 윈도우 사이에 위치한 입구는 거리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원한 개방감과 환영하는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내추럴 컬러와 오가닉 소재(석회석과 참나무), 블랙 브러시드 메탈 포인트가 돋보이는 두 배 높이의 내부 공간은 예거 르쿨트르의 본고장인 발레드주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 **장인 정신을 향한 찬사**

개방형의 메인 층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유동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 메종과 워치메이킹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입구 바로 앞에 있는 크래프트맨십 테이블(Craftsmanship Table)에서는 예거 르쿨트르 통합 매뉴팩처의 180 가지 기술 중 일부인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쟈세팅 등 메티에 라르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쪽 벽에는 현재 컬렉션에서 가장 진귀하고 우아한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맞춤 제작과 헤리티지의 세계**

오른쪽에 타원형으로 배열된 디스플레이 카운터는 현재 메종 컬렉션의 모든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바로 가까이에는 흥미로운 양방향 칼리버 벽이 있어 메종 창립 이래 제작한 1,400 개의 칼리버 중 상징적인 모델들을 일부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서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디스플레이 카운터 외에도 양방향 스트랩 벽을 통해 고객은 다양한 옵션을 시도하거나 시계 케이스와 스트랩 소재, 컬러, 스티치를 완벽하게 조합하여 시계를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맞춤 제작이 지닌 힘은 인그레이빙 및 래커 처리된 리베르소 케이스백을 통해 더욱 강력해지며 개인적인 상징을 새겨넣을 수 있는 리베르소를 소유하는 특별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 **1931 카페**

입구 왼쪽에 위치한 1931 카페에서는 음료를 즐기며 메종에 대한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명한 리베르소가 탄생한 해의 이름을 딴 카페는 맞춤형 패턴의 타일 벽이 특징으로, 이는 리베르소의 아르데코 디자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메종의 Made of Makers 프로그램에 따라 알렉스트로슈(Alex Trochut)가 제작한 레터링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하였습니다.

### **리베르소의 특별한 스토리**

1931 카페 옆 공간에는 사운드 메이커(The Sound Maker), 스텔라 오디세이(The Stellar Odyssey), 프리시전 메이커(Precision Maker)를 주제로 매뉴팩처와 위치메이킹 전문성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흥미로운 전시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In The Making* 영상 라이브러리에서 감동적이고 교육적인 9 가지 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통해 설계, 생산, 조립, 마감, 장식 등 통합 매뉴팩처의 시계 제작 5 단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아틀리에 앙투안과 함께하는 교육 과정**

부티크 중심에 마련되어 있는 VIP 라운지는, 한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프라이빗하게 메종의 타임피스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메인 층이 내려다보이는 ‘글래스 박스’층까지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마치 조각 작품 같은 드라마틱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아틀리에 앙투안은,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스위스 파인 위치메이킹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치메이킹 전문가가 주최하는 디스커버리 워크숍은 각 테마별로 구성되며 한 번에 최대 6 명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위치메이킹의 이론과 직접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역동적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에 대한 예거 르쿨트르의 열정을 강조하기 위해, 인하우스 워치메이커가 부티크에 상주하며 브레이슬릿 교체 또는 크기 조정은 물론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모든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메디슨가에 새롭게 자리 잡은 플래그십은 단순히 시계를 구매하는 부티크가 아닌, 방문객들이 잠시 멈추어 시간을 보내기도, 혹은 정교한 워치메이킹의 세계와 예거 르쿨트르의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여, 그랑 메종의 헤리티지와 워치메이킹의 전문성, 혁신 정신, 그리고 독창성에 대하여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 위치, 개장 시간 및 입장료

*예거 르쿨트르 플래그십 부티크는 701 Madison Avenue, New York 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운영됩니다.*

*아틀리에 앙투안 워크숍은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aeger-lecoultre.com/atelier-antoine-in-store-experiences-new-york>*

---

###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

**jaeger-lecoultre.com**